

현대 ‘아이오닉 6 N’ 자동차 축제 ‘화려한 데뷔’

英 ‘굿우드 페스티벌’서 신기술 공개
브랜드 출범 10주년 맞아 위상 공고
메인 이벤트 힐클라임 코스 주행 참가

현대자동차가 영국 ‘2025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 (Goodwood Festival of Speed, 이하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아이오닉 6 N (IONIQ 6 N, 아이오닉 스포츠 엔)을 성공적으로 데뷔시켰다.

현대차 N브랜드는 지난 2023년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아이오닉 5 N’을 최초로 공개한 데 이어 두번째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6 N (IONIQ 6 N)’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선보이며 브랜드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순간을 만들고 고성능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새롭게 공개된 아이오닉 6 N은 글로벌 수상 경력에 빛나는 아이오닉 5 N의 기술력과 성능을 기반으로 현대 N의 모터스포츠 경험과 ‘롤링랩 (Rolling Lab)’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이 집약된 모델이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에서 IONIQ 6 N의 고성능 디자인과 기술력을 전 세계 자동차 팬들에게 선보이며 전동화 고성능의 영역을 더욱 확장했다.



현대자동차 고성능 브랜드 ‘아이오닉 6 N’이 최근 영국 ‘2025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사진은 아이오닉 6 N 차량.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차 차량개발담당 만프레드 하러 (Manfred Harrer) 부사장은 “IONIQ 6 N은 ‘Fun to Drive’라는 N의 철학을 바탕으로 팬과 고객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개발된 모델”이라며 “더 많은 분들이 이 차를 통해 진정한 운전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했다.

또한 현대차 글로벌사업관리본부장 이영호 부사장은 “현대 N은 앞으로도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고객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전기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파워트레

인으로 고성능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아이오닉 6 N을 비롯해 ▲N 퍼포먼스 파츠가 장착된 IONIQ 6 N ▲드리프트 최적화 세팅의 IONIQ 6 N 드리프트 스펙을 선보이며 아이오닉 6 N의 모터스

포츠 확장성과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 글로벌 자동차 팬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아이오닉 6 N은 굿우드 페스티벌을 상징하는 메인 이벤트 힐클라임 (Hillclimb) 코스 주행에 참가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하이라이트로 펼쳐진 ‘N 모먼트 (N Moment) 퍼포먼스 세션’에서는 N의 모터스포츠 경험을 상징하는 랠리카 2종 ▲2014 현대 i20 WRC ▲2024 i20 N Rally 1 Hybrid과 ▲롤링랩 RN24 ▲아이오닉 6 N ▲아이오닉 6 N 드리프트 스펙 전용 N 퍼포먼스 파츠가 적용된 아이오닉 6 N이 힐클라임 코스를 함께 주행하며 브랜드 런칭 10주년을 기념했다.

이는 현대차가 N만의 고성능 기술을 발전시켜온 과정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현대차의 비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무대로 현장에 모인 글로벌 자동차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현대차는 굿우드 페스티벌내에 N 전용 부스를 운영해 아이오닉 6 N 및 N 퍼포먼스 파츠와 함께 아이오닉 5 N 등을 전시하고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브랜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성능차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고성능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채만 기자

“베스트셀링카 위상 확고히”...기아 ‘The 2026 쏘렌토’ 출시

운전자 보조 사양 강화 등 상품성 제고
그래비티 트림 명칭도 ‘X-Line’ 변경

기아가 국내 대표 중형 SUV 쏘렌토의 연식 변경 모델 ‘The 2026 쏘렌토’를 14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사진>

The 2026 쏘렌토는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이 강화되고 실내의 디자인 고급감이 향상돼 전반적인 상품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The 2026 쏘렌토의 모든 트림에 차로 유지 보조 2와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를 기본 적용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 선호도가 높은 기아 디지털 키 2와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을 인기 트림인 노블레스부터 기본화해 실용성을 한층 높였다.

The 2026 쏘렌토는 새로운 디자인의 4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탑재됐으며 엠비언트 라이트가 1열 도어 팽퍼켓까지 확대 적용돼 실내 고급감이 더욱 향상됐다.



기아는 The 2026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에 세련된 디자인의 19인치 신규 휠을 추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에 추가된 19인치 휠은 시그니처 트림부터 선택 가능하며 2WD 모델의 경우 19인치 휠

선택 시에도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아는 기존 그래비티 트림의 명칭을 ‘X-Line’으로 변경하고 블랙 색상의 엠블럼과 휠캡을 추가해 디자인 특화 트림 X-Line만의

강인한 느낌을 극대화했다.

The 2026 쏘렌토의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모델 ▲프레스티지 3천580만원 ▲노블레스 3천891만원 ▲시그니처 4천168만원 ▲X-Line 4천200만원이며 2.2 디젤 모델 ▲프레스티지 3천750만원 ▲노블레스 4천61만원 ▲시그니처 4천338만원 ▲X-Line 4천431만원이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2WD 모델은 ▲프레스티지 3천896만원 ▲노블레스 4천217만원 ▲시그니처 4천467만원 ▲X-Line 4천559만원이며, 4WD 모델은 ▲프레스티지 4천225만원 ▲노블레스 4천546만원 ▲시그니처 4천795만원 ▲X-Line 4천888만원이다. (개별소비세 3.5% 기준,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2WD 모델은 친환경차 세제혜택 반영 기준)

기아 관계자는 “쏘렌토는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국내 판매 1위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링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The 2026 쏘렌토는 한층 강화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큰 만족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장거리 운행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고객 차량의 주요 부품을 미리 점검할 계획이다.

무상점검 항목은 ▲냉각수 ▲오일류 ▲워셔액 ▲배터리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 ▲공조장치 ▲타이어 공기압 ▲등화장치 등으로 점검을 받은 고객에게는 워셔액 1통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현대차·제네시스 고객은 전국 1천22개 블루핸즈 (직영 하이테크센터 제외), 기아 고객은 전국 76개 오토큐 (직영 서비스센터 제외)를 방문해 무상 점검 쿠폰을 제시하면 된다.

쿠폰은 16일까지 ‘마이현대 (myHyundai)’, ‘기아 (Kia)’, ‘마이 제네시스 (MY GENESIS)’, ‘현대 인증중고차 (HyundaiCertified)’ 등 통합 고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채만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